

'미래사회,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말하다'

전주교대, 한·러·일 국제학술대회 성황리 마쳐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14일 교육문화관 김서종홀/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 등에서 '미래사회,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러·일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김우영 총장, 전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대학·기관 관계자와 학생, 지역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한국, 러시아, 일본 3개국 공동으로 개최됐고, 1부 기초강연, 특별강연을 이어 2, 3부에서는 3개 세션으로 구분해 총 14개 주제 발표, 4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경은 초등교육 연구원장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학교교육과 교육의 성격에 대해 성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 고자 했다"며, "이 자리를 찾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부로 이날 기초강연은 '평생학습 시대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경 인교육대학교 류정산 교수가 진행했다. 미래학자인 류 교수는 "선진국의 다양한 교육 트렌드를 읽고 우리나라 역시 STEAM교육, 코딩교육, 융합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 교육이 요구하는 실체를 잘못 적용하는 사

례가 적지 않다"며, "교육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러시아 극동연방 대학교 소속 Martynenko Oksana 교수(우수리스크 사범대학교총장)는 1920 여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러시아 내 교육흐름을 발표했다.

오후 2부에는 제1세션에서 한국과 학창의재단 이정규 경영기획단장의 '미래교육의 혁신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주제와, 박기문 교수(충남 대학교)의 '메이커교육기반 기술교 수에 대한 발표 및 고은성 교수(전주교육대학교)의 '미래세대를 위한 통계교육'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박승배 교수(전주교육 대학교)의 '전북 혁신미래학교 정책 고찰', 이경한 교수(전주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의 시민교육역량 강화 방향과 그 내용', 이인교수(전주교육 대학교)는 'Using Wordless Picture Books in Elementary English Teacher Trai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평 교수(전주교육대학교)가 '모두가 누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유정수 단장(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혁신인재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주교육대학교가 14일 '미래사회,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러·일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제3부 1세션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기반의 영어교육교수법 개발 및 적용사례'라는 주제로 강영돈 교수(동양대학교)가, 가상현실/증강 현실의 교육적활용이라는 주제로 김현우 교수(예수대학교)가 발표했다.

2세션 장현진 교수(서울교육대학교)가 '미래진로교육에 대한 현직자 직업지표 분석의 함의'를, 민재원 교수(전북대학교)가 '문화교육 교육과정의 보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일본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교육의 과제'로 배

광웅 교수(오사카교육대학교)가 '일본에서의 교육개혁에 의한 교육정보화 중요성'의 주제로 Niitsu Katsuj i 사(오사카교육대학교)의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종합토론시간 이 진행됐다.

김용재 교수(전주교육대학교)는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미래교육을 성찰해보는 오늘 이자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변화를 피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동행

전북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 잇따라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전북대는 지난 16~17일 양 일 간 도민을 대상으로 '제1회 전북대학교 총장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는 약 200여 팀 6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경기는 전북대 테니스장을 주경기장으로 체련공원 테니스장과 원주군청 테니스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 해 단체전, 남자부, 여자부로 진행 됐다. 특히 이번 도민 테니스대회는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북대는 또 이달 말 지역민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와 전주시배드민턴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동호인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향후에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16일에는 캠퍼스 텃밭 가을걷이 행사도 가졌다.

지역민 가족, 대학 구성원 등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분부터 가꿔 온 채소, 작물들을 수확하고 품평 회도 열었다.

우수 농산물 재배자와 텃밭을 가장 잘 가꾼 분양지에 대한 시상도 하고, 오찬을 겸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전북대는 텃밭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캠퍼스 텃밭을 조성, 올 봄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 등에 분양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으로서 일한 대학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캠퍼스 텃밭 외에도 대학이 보유한 인문학, 예술·문화 공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의 IT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 편의성을 제 공하기 위해 '전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 오피스, 클라우드 저장소, 협업시스 템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도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에게 MS Office, Windows10, IT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난 10월 구축이 마무리됐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한 달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정식서비스가 전면 개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과 개인용 IT기 기 소프트웨어 사용 편의성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 능정보사회에 따른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품질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예사랑, 이웃사랑 실천 나눔장터 개최

전북도교육청 예사랑 동호회는 아름다운 가게 전주서신점과 함께 나눔장터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나눔장터는 기부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도교육청 및 전주·익산·군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들로, 16일 서신동 도내기생 근린공원(지리 산발당 근처)에서 열렸다.

한편 행사 수익금은 가정체체, 방 입,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그룹 홈의 시설보장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는 예사랑 동호회와 아름다운 가게 서신점,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해준 교육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잠재 역량 키우는 과학동아리 나눔마당 개최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의 잠재 역량과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 2019 전북학생과학동아리 나눔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도교육청 2층 강당과 8층 회의실에서 학생주도과학동아리(고교) 150팀, 사제동행과학동아리(중학교) 11팀 등 전북학생과학동아리 161팀을 대상으로 운영결과 발표 및 전시를 위한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나눔마당은 학교별 운영 사례 공유 기회를 제공해 또래 간 동아리 활동 교류를 촉진하고, 과학동아리 운영 모델을 제시해 도내 과학동아리 운영 학교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분야별로는 과학실험, 과학연구(R&E), 교과 외 활동 영역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학동아리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 역량과 자율성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중,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어울림 공연 '큰 호응'

전주기전중학교(교장 김동수)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어울림'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3시 학교 강당에서 1, 2학년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폭력의 유형을 알리고 폭력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은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다.

이 공연은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매주 두 시간씩 꾸준히 연습을 이어왔다.

또 뮤지컬 '홍도'를 관람한 후 배우들과 토의 시간을 갖는 등 뮤지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정삼택(뮤지컬), 김다영(안무) 강사를 초청해 갈고 닦은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김동수 교장은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기회였다"며 "노래와 춤



전주기전중학교가 15일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어울림' 공연을 펼쳤다.

등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고, 참여를 주저하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우가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 같아 흐뭇했다"고 전했다.

기획과 연습을 주관한 이성인권부장 송재봉 교사는 "비쁜 일과 속에서 연습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의 문

제점 토론과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대본의 줄거리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연출을 나누는 등 학생자치의 문화가 뮤지컬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협찬

2020 정읍 상운의 해 2019-20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www.jcc.or.kr